

장혁 “다급하고 투박한 액션 보이려 노력”

OCN ‘보이스’ 매회 반전과 새로운 인물 등장으로 시청자 눈길 잡아 잔혹한 폭력 장면, 방통위 소위원회 상정...제작진 “수위 조절 할 것”

“왜 제가 범인이라고는 생각들을 안 하시죠?”

OCN 주말극 ‘보이스’에서 주인공 ‘미친개’ 무진혁 형사 역을 맡아 매회 파우 액션을 소화 중인 배우 장혁은 웃으며 말했다. 매회 반전과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면서 시청자들을 갈수록 헛갈리게 하는 ‘보이스’, 주연 배우조차 추리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장혁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도 대본을 받을 때마다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극 중에서 아내를 죽인 범인이 누군지 추측하기가 쉽지 않다”며 “제가 범인일 수도 있지 않냐”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보이스’의 액션은 제한된 골드타임 안에 피해자를 구출해야 하기 때문에 투박하고 다급한 느낌이 살아야 한다는 게 다른 수사물의 액션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위험한 액션신이 많아 아내와 아들이 걱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집에서는 나가서 에너지를 잘 쏟고 오라고 한다”며 “특히 아들은 그 도래가 가진 순수한 상상력이 모니터링의 기준이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차분한 목소리로 피해자와 긴 통화를 이어가려는 강권주(이하나 분)와 달리 무진혁은 주로 몸을 쓴다. 그럼에도

장혁을 여러 번 NG 내게 한 대사가 있으니 바로 범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때다.

장혁은 “극 중 배경인 112신고센터는 사전예방이 목적이야 보니 현장에서 범인을 잡아도 다급하고, 대사에 감정이 들어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어나씨는 대사가 많은데 잘해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로 “‘검거완료’를 쫓았다.”

또 제일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로는 아동 학대 이야기를 들었다. 장혁은 “무진혁이 아동 학대를 한 노인을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땐 좀 심한 게 아닌가 했지만 세트장에 갇힌 아이를 보니 이해가 됐다”고 설명했다.



장혁



이하나

절대적인 청각능력을 소유한 강권주 112신고센터장 역을 맡을 이하는 수사극의 매력을 뒤늦게 알았다.

이하는 “요새 자다가도 ‘코드제로’를 외친다”며 강권주의 역할에 푹 빠진 모습을 보였다.

그는 ‘보이스’를 촬영하기 전 112 신고센터에 방문한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하는 “실제 대원들은 굉장히 말이 빠르면서도 발음이 정확했다”며 “신고 전화를 받을 땐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검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냉정을 유지하다가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게 제겐 큰 감동으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극 중 강권주가 남자를 향해 포맷자루에 담긴 채 생매장을 당할 뻔한 장면에 대해선 뒷얘기를 전했다.

이하는 “제가 키가 커서 포맷자루에 잘 안 들어가 몸을 구겨 넣느라 힘들었다”며 “장혁씨가 정말 절실하게 흠을 파주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고마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시체 앞에서 연기할 때 NG가 많이 났다. 시체 분장을 보면서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 같아서 대사가 안 나왔다”며 “집에 가서 자기 전에도 계속 생각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일부 시청자는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방송 중인 ‘보이스’가 출혈 장면과 폭력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하며 범죄까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방송된 8회에서 박복순 행세를 하던 심준옥(이유녀 분)이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살해당한 후 심자가에 못 박혀 장롱 안에 걸린 모습은 스틸러를 넘어 ‘호러’에 가까웠다.

결국 ‘보이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에 대해 김홍선 PD는 “에피소드들이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기 때문에 희생자들이 당했을 상황과 최대한 가깝게 표현하다 보니 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될 수 있으면 시청자들이 덜 불편할 수 있는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극의 흐름을 깨지 않는 방식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새로운 인물 모태구(김태욱)의 등장에 더해 골드타임된 브레인 오현호(예성)가 불의의 사고에 휘말리게 되면서 더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가 전개될 예정이라고 김 PD는 전했다.

김 PD는 “한 회에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시청자들이 답답해하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사이다’처럼 끝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우리는 가해자들이 어떤 연유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되짚어보는 부분을 포함했다. 태생적으로 기획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안석환

정애리

정준

광주 MBC 드라마 제작 나선다

4부작 ‘파라다이스 극장’ 안석환·정애리·정준 등 출연 가족 극장 지키는 과정 코믹하게 그려...내달 11일 첫 방

지역방송사가 광주를 소재로 우리시대 이야기를 풀어가는 뜻깊은 드라마를 제작한다. 광주MBC가 특별기획 4부작 드라마 ‘파라다이스 극장’(1회 60분 분량)을 3월11일 오전 9시40분 첫 방영한다.

매주 토요일 4회 연속 전파를 타는 ‘파라다이스 극장’은 대기업 등장으로 대형화된 극장 사이에서 오래된 극장을 지키기 위한 가족들의 고군 분투를 그린 코미디극이다.

한때 잘 나갔지만 멀티플렉스에 밀려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상영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파라다이스 극장’. 극장 대표 경서는 현 상황을 한탄하며 오늘도 포장마차에서 술잔을 기울인다. 얼큰하게 취해 극장으로 돌아온 경서의 눈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보인다. 극장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를 보기 위한 줄이 아니고 지난주 1등이 나왔던 극장 옆로도 판매점의 줄이었다.

파라다이스 극장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극장 가족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주연 구경서 역(役)은 중견 탤런트 안석환씨가, 아내 민성실 역은 정애리가 맡았다. 또 아들 구석기(정준), 유라희·민보라(반민정), 소소희(김사희), 흥진기(지대환), 강씨(김양우) 등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해 재미를 이끈다.

연출은 정성현, 박지원씨, 제작은 ㈜유진아이엔피, ㈜퍼니브라운이다.

오는 19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서 첫 촬영에 들어가는 등 광주·전남에서 울로케이션 촬영한다.

한편, 광주MBC는 20일 오후 2시 광주 MBC홀에서 출연배우와 제작진이 참여하는 제작발표회를 열어 포토타임, 인터뷰 시간을 갖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TV 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날)	30 KBC 모닝 730
8	25 국민과 함께, 방송 90년 기획 아침대망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TV블로그 꿈지락 30 아침연속극 (아침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소셜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미래기획 2030 (초저출산시대, 아이가 희망이다) (재) 50 팔도발성 스페셜	00 인간극장 스페셜	00 불어라 미용(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드라마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재)	00 SBS 12 뉴스 25 KBC 12뉴스 45 2017 SBS 특별기획 (대선주자 국민면접)(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네티즌기획 문화산책 55 노래가 좋아(재)	55 감성애니 하루 시즌2	30 앙코르 MBC 다큐프라임 (다윈, 칸트를 만나다)	
2	50 사람과 사람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0 텔레몬스터 30 헬로킴지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2시, 뉴스브리핑
3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아해! 동물탐험대 2 55 내일은 언제나 푸름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독 플러스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건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밤상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비타인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공사청립집 8부작 UHD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1면 왕의 거처, 장덕궁) 55 감성애니 하루 2	00 수목드라마 (김과장)	00 수목드라마 (미생나인)	00 드라마 스페셜 (사임당, 빛의 일기)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국민과 함께, 방송 90년)	10 해피 투게더	10 세가지색 판타지-생동성 연애	10 2017 SBS 특별기획 (대선주자 국민면접)
12	30 네티즌 문화특선 올댓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MBC 뉴스 24 4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재)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똥똥똥 유치원 1~2 08:30 울강한 소방차 레이 08:45 놀이대장을 찾아라 09:00 주사위 오정 큐비주 09:15 시계마을 타기톡!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시금치 피자버거트와 갈릭 버터 브레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12:40 역사채널e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스텔렌드-한자왕국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출동! 슈퍼웍스 14:2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키탐험대 15:20 꼬마기사 마이크 15:35 오솔 상자 15:45 코코코 다코 16:15 두디다롱 16:30 놀이대장을 찾아라(재) 16:45 똥똥똥 유치원 1~2(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다크우울
20:50 세계테마기행 <살아있는 지구를 만나다, 뉴질랜드 4부 방화의 속살을 걷다, 남섬> 21:30 한국기행 <겨울과 산다 4부 매일 그대와> 21:50 세계문화기행 -문학의 길을 걷다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사회적 낙인> 무서운 이유는? 24:10 스페이스 공감 1, 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6일 (음 1월 20일 甲戌)	
子	48년생 안정된 마당이 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겠다. 60년생 기쁜 마음으로 임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72년생 고난에 한 하루가 될 것이다. 84년생 학습고해했던 배를 목전에 두고 있다. 행운의 숫자 : 12, 54	午	42년생 쉽게 장담하지 말라. 54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라. 66년생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만 응통이 쉽지 않을 것이다. 78년생 드러나지 않은 범위가 활전 코드는 것을 알라. 90년생 정신적 휴식과 기본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02, 69
丑	49년생 인내심을 발휘했을 때 성과를 거두게 된다. 61년생 모든 일이 순행하면서 행운을 가져다주리라. 73년생 남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낫다. 85년생 폭넓은 안목과 식견이 길잡이를 부러리라. 행운의 숫자 : 32, 20	未	43년생 양면성을 띠고 있다. 55년생 어울려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67년생 힘이 드는 하루가 펼쳐 질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라. 79년생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더딜 수밖에 없다. 91년생 비중 있게 전개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51, 89
寅	50년생 무심코 한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삼사일 언하는 것이 옳다. 62년생 차분하게 마음먹되 실행은 민첩하게 하자. 74년생 치열한 속에는 후유증도 따르게 되어 있다. 86년생 경쟁자와 동반하는 면모이다. 행운의 숫자 : 92, 22	申	44년생 굳이 앞서 갈 필요 없으니 서두르지 말라. 56년생 객관성에 근거하여 철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68년생 대단하기는 하지만 자신과의 인연은 박할 것이니라. 80년생 외형보다는 실속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81, 26
卯	51년생 원리 원칙만 따지지 말고 융통성을 보인다면 부가적 이익을 과히라. 63년생 인위적이라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공간이 크다. 75년생 별개의 개념이니 함께 다룰 일이 아니다. 87년생 슬관란 위원의 자매이니라. 행운의 숫자 : 24, 53	酉	45년생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할 것이니 잘 췌겨라. 57년생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확인만 잘 해도 사고를 예방한다. 69년생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계제이니라. 81년생 격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집이 될 수다. 행운의 숫자 : 62, 84
辰	52년생 상대의 갑작스런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64년생 말 못할 갈등에 사로잡힐 수이다. 76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생산적이다. 88년생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1, 58	戌	46년생 총분해 의사 전달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58년생 회복 세로 돌아서라. 70년생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일이다. 82년생 이탈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73, 57
巳	53년생 취약점을 보완한다면 때 놓은 당상이다. 65년생 근원을 찾아본다면 새롭게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니라. 77년생 기존의 계획에 몇 가지만 추가하면 된다. 89년생 심사숙고한다면 손재를 막는다. 행운의 숫자 : 43, 03	亥	47년생 밤상하고 있다면 목전에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예의 주시하라. 59년생 여백의 아름다움이 훨씬 빛나리라. 71년생 간단명료한 것이 최상이다. 83년생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05, 7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